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하나복의 제자훈련 1단계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신청자를 받습니다. 싸인업해 주세요.
4. 부활절 예배 후 식사교제(potluck)가 있습니다.
5. 부활절에 주일학교는 예배와 행사를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6. 부활절 특별헌금을 통해 불우한 이웃과 선교지를 돕는 미션 펀드를 마련하고자 하니 동참해주세요.
7.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30일 : 박시형 / 31일 : 김다울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전미영 / 설교번역: 이예슬
- 3월 안내 및 봉사: 슬기로운 목장

##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다하나 캠프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3주)

사 50:4-9a, 시 31:9-16, 빌 2:5-11, 마 27:11-54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막 11:9-10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기도      이바다
- 주일학교 이동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 성경봉독      누가복음 23장 50-55절      인도자
- 설교      왕과 역인 사람들      김경헌 목사
- 봉헌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다같이
- 봉헌기도      인도자
- 교회소식      인도자
-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 \*축도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 목회편지 / 방울꽃

이번 주 교회 주변 산책을 돌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하얀 색 방울꽃들이 한데 모여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봄이 와버렸다고?’라는 생각과 함께 이 녀석들이 영하의 추위를 잘 견뎌내야할텐데 라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산삼이라도 발견한양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얀 꽃봉오리를 한참 바라보며 감상했습니다. 잿빛 겨울로 둘러 쌓인 대지 가운데 하얗게 피어난 꽃망울들이 경이롭기만 했습니다. 생명의 잔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른 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잔치는 이미 시작됐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그날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수의가 아닌 일상복을 입고 그들을 찾아 오신 예수님과 조우하며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만물이 깨어나는 이 봄에 부활을 맞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 기쁜 마음에 가족들에게 꽃사진을 보내며 방울꽃 좀 보라고 하며 제가 ◦받침을 빼먹고 ‘바울꽃’으로 보냈나봐요. 누이가 거기는 ‘바울꽃’도 피나보다 하면서 신기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방울꽃이 바울꽃으로 변하는 이 어이 없지만 홀리한 상황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나를 온전히 죽이고 십자가에 못박는다는 의미의 이 고난 주간을 잘 통과할 때 부활을 맞는 기쁨은 남다를테니 뜻깊은 고난 주간이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생회에서 고난 주간에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자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을 권했었죠. 그런 실천들에 동참하다 보니 이 주간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고 뭐고 배고픈 것은 도저히 못참겠다 하며 금식을 지키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탄소금식이니 미디어금식이니 하는 것들도 보편적화 됐습니다. 파괴되어가는 피조세계를 위해 최대한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켜가는 것이 탄소금식이니 미디어금식은 고난주간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들을 안 보거나 줄이는 것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더 묵상하자는 취지에서 실천되어오고 있는 절제 훈련입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하루 한 끼 금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침식사가 몸에 배여 있는 저로서는 쉽지 않은 실천이었지만, 이 실천을 통해 제가 얼마나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에너지와 기쁨의 원천을 차단해 보니, 내가 주님 보다 더 이것들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실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머무시겠습니까? 무엇이 됐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고난 주간이길 바랍니다. 찬란한 부활을 기대하며 말입니다.